

장흥군, 신규농업인에 이론·실습 겸한 '맞춤형 농업기계교육' 성료

농업기계 사용 교육으로 신규농업인 영농 정착 도모



장흥군은 신규농업인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 속에 마무리하였다. 해당 교육은 지난 7월 3일부터 24일까지 4

회에 걸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귀농인 등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과 연계한 이번 교육에는 예초기 구조 이해 및 정비교

육을 시작으로, 트랙터 및 관리기 등의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많은 예초기와 관리기의 사용방법과 경정비 교육으로 농업기계에 대해 사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고가의 대형 기종인 트랙터 및 굴착기를 직접 운전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쉽게 접하기 어려운 농업용 드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장흥군에 귀농하여 초보 농사꾼이 된 김주현(완산, 37세)씨는 "임대용 농기계의 종류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으며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추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교육은 9월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11월 소형 건설기계 자격취득 과정 등이 실시 될 예정이다.

농촌 인력난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의 활용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활용을 위해 현장 및 실습 중심의 농업기계 교육을 적극 확대 추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나에게 맞는 와인은? 어울리는 맞춤 색 찾아볼까?"

회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와인 강좌와 나를 가꾸는 개인 맞춤 색(퍼스널 컬러) 강좌를 마련한다.

재단법인 해남군교육재단에서는 '해남 이사 빛 인문학'강좌로 23일 와인 강좌, 25일 개인 맞춤 색(퍼스널 컬러) 강좌를 운영한다.

와인강좌는 권기훈 소믈리에를 초빙해 와인의 역사와 실생활에서 와인을 즐기는 방법 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한 와인 입문 과정에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맞춤 색(퍼스널 컬러) 과정은 사람마다 다른 신체색을 진단해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맞춤색을 찾고,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관리 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18일까지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전자우편(zzjj0320@haenamedu.or.kr)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누리집과 해남군교육재단 평생교육 담당자(☎ 061-537-7808)에게 문의하면 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탄력...기본계획 용역 착수

산림청·전남도·완도군 착수보고회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산림청과 전남도, 완도군이 추진하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가 지난 7일 완도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본계획 용역은 사업 추진의 첫 단추 격인 기본 방침과 콘셉트, 구상, 배치 등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지역의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용역사는 관계기관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산림청의 기조는 지역에 기

여할 수 있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다"며 "지역의 향토 문화가 반영된 특색 있는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완도군이 더 멋진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전남도립수목원인 완도수목원 부지 381ha에 국비 1475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번에 통과한 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다.

산림청과 전남도, 완도군 등 관계기관은 별도의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현안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군, 망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2020년부터 총 98억여 원을 투입해 방파제 연장사업 등 조성

강진군 도암면에서 '망호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6월 말 완료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망호항 어촌뉴딜300사업'에 2020년부터 총 98억여 원을 투입해, 방파제 연장사업을 비롯해 선착장 기반시설, 낚시어선거점항 및 어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했으며, 해안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과 주차장 등도 새롭게 마련했다.

망호항은 과거 망호선착장이 어항 핵심 시설로 활용됐지만, 선착장 돌출부 10m

위에 항 주변에 방파제 시설이 없어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기능이 미약했고, 특히 여름철 태풍 북상 시, 선착장 어선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어민들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망호항을 이용하는 어선과 기타 선박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강진만 해양레저 1번지' 건설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공모사업의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등

진도군이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8일 조상필 전남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초청해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모사업 유치 필요성과 중요성 ▲공모사업의 개괄·공모절차상 고려사항 ▲진도군의 대응 전략 등으로 전남도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응모·선정·사후관리 등의 방향 제시와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활용한 알기 쉬운 설명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갖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군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지난 1일(화)에는 '국고건의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보고회'를 개최해 국비확보와 공모사업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응모로 공모사업의 적기 발굴과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며 "중앙부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진도군 미래전략위원회와 국비확보 TF를 구성해, 보다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2022년 공모사업으로 48건, 3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2023년 7월말은 공모사업 40건, 582억원 사업비를 확보, 전년 대비 164%가 증가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